

국정자원 화재 첫 평일, 민원 대란 없었지만... 불편 여전

국가정보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첫 평일을 맞은 29일 정부24 등 민원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복구되면서 대란은 피했다.

다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만큼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활용이 어렵거나 수기로 대체하고 있어 한동안 민원 불편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와 민원서비스 정부24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들어 지역내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내 모바일 신분증 본인확인을 제외한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

지자체 등은 모바일 신분증 본인확인이 연동되는 서류 발급 업무 등에 대해 개별 시스템을 통해 발급을 대체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업무도 이날 오전 중 정상화됐으며 여권발급서비스 중 발급 결정사유 조회도 대체 누리집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다.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인 새울행정시스템 내 온라인 업무도 대다수 정상 기능을 되찾았지만 일부 업무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기획재내 내 지자체 규제정보 시스템 연계가 불가능해 공직자들은 수기로 이를 처리하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전자민원 접수·처리도 어려운 상태다.

정보공개청구 또한 청구·공개자료 회신이 어려워 신청자는 수기로 진행해야 한다. 영락공원 화장장 이용 신청도 수기로 대체됐다. 이밖에 이번 화재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발생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보고체계로 활용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도 먹통이 되면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팩스 또는 우선신고로 진행해야 한다.

앞서 국정자원 화재 이후 첫 월요일을 맞은 이날 오전에는 추석을 코앞에 두고 밀린 행정업무에 대해 행정복지센터 찾은 민원들이 모여 복새동을 이루기도 했다.

민원인들은 창구마다 부착된 현재 제한 중인 민원 업무를 안내하는 글귀를 보며 '복구된 게 맞냐'고 수근거리는 등 다시 한번 한숨을 내뿜어 쉬었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나흘째인 29일 광주 북구 용봉행정복지센터에 오전 추석을 앞두고 민원 해결을 하러 온 주민들이 붐비고 있다. /뉴스

정부24 작동, 무인민원발급기 대부분 기능 정상 문화누리카드·여권 발급도 일부 제외 모두 가능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등 복구에도 행정 신뢰 '뚝' "주말 복구 안됐으면 대란... 행정 불신 돌아야"

민원인들의 걱정과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지는 사이 민원실 바깥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안내하는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움직였다.

수요가 높은 민원 내용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까스로 이날 오전 정상 작동, 가벼운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거듭 이용해달라는 직원들의 부탁도 이어졌다.

정보관리원 화재의 불똥은 소방당국으로도 튀었다.

화재 이후로부터 나흘간 진행된 복구 작업결과 출동 장소와 지령을 안내하는 구급단말기는 되살아났지만 일부 시스템 문제가 여전하다

현재 119 상황실에 전달되는 신고 현장

상세 위치가 담긴 GPS 또는 와이파이가 없으면 여진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체국에서도 관련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동안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입력되던 배송 정보는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신선식품은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는 서명을 한 뒤에야 택배를 부칠 수 있다.

민원인들은 화재로 인한 정부 시스템 마비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였다.

가족의 사망신고서를 작성하러 온 한

60대 남성 민원인 A씨는 "주말사이 가족이 숨졌는데 사망신고서 작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보도도 접했다. 지인들로부터도 걱정하는 연락을 많이 받았지만 혹시모르는 마음에 구청에 들렀다"며 "다행히 신고는 접수됐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계기가 되지 않나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입신고서 작성을 마친 40대 남성 민원인 B씨도 "국가기관에 불이 났다고 당장 민원이 급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 중요한 자료라면 분산해 보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점검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의문이다."

주말사이 일부라도 복구가 안됐으면 그야말로 대란이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정부 행정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현재 순차적인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불로 정부 행정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현재 순차적인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오권철 기자

광주 옛 방직터 개발 대우건설도 포기 포스코이앤씨 이어 개발포기 의사 밝혀 10월 1일 예정... 아파트 우선 분양 취소 공공기여금 5900억원 납부도 차질 예상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주택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했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사업 철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개발사 측은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수천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 확보 등 차질이 예상된다.

첼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비(첼피언스시티개발사)는 대우건설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발 시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 내부 심의를 거친 결과 부결됐다"며 전날 구두로 사업포기 의사를 첼피언스시티개발사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첼피언스시티개발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중 유일하게 남은 대우건설마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대우건설과 함께 옛 전방·일신방직 터 개발사로 함께 선정된 포스코이앤씨도 지난 17일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정부의 압박을 받는데 이어 최근 대표 등이 물러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재검토 등을 한 뒤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는 또 광주시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시차를 두고 개발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은 중단됐다.

첼피언스시티개발사는 지난 2020년 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6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대규모 주택 개발을 승인 받았다.

광주 북구 임동 29.8만㎡(9만 평) 부지에 총 4315가구의 주거 시설과 업무·상업시설, 특급호텔, 역사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다음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후 첼피언스시티개발사는 시공사와 아파트 건설 계약을 체결 한 뒤 10월 1일부터 2블록 3216가구 1차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취소됐다.

또 대규모 아파트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5900억원을 광주시에 납부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차질이 예상된다.

첼피언스시티개발사는 광주시에 공공기여금으로 현금 3000억원과 현금 2900억원을 아파트 개발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첼피언스시티 개발사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시공사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라며 "시공사 재선정까지 최소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 초에나 시공사가 다시 선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현재로서는 시공사가 없기 때문에 분양도 할 수 없고 공공기여금 납부도 불가능 하다"며 "시공사를 빨리 선정해 아파트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현재로서는 시공사가 없기 때문에 분양도 할 수 없고 공공기여금 납부도 불가능 하다"며 "시공사를 빨리 선정해 아파트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현근 기자

광주교육청, 추석연휴 '주차장' 무료개방... 학교 등 153곳

광주시교육청은 추석 연휴기간 귀성객 편의를 위해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분청과 산하 기관, 학교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방하는 곳은 시교육청 본청, 동·부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 15곳, 일선 학교 138곳 등 총 153곳이다.

현재 공사 중인 학교와 기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외한다. 주차장 개방 시간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이용에 앞서 확인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기관별 개방일은 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청은 자주시 주차장을 포함해 총 313편을 개방할 예정으로 인근 주택가의 주차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전통시장 주차 완화·버스 증차... 광주시 추석 교통특별대책

한다. 또 월남동-태령을 운행하는 지원15번은 영락공원을 경유하며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용전86번은 영락공원까지 연장한다.

시내버스·지하철 막차 연장 운행은 이용 수요가 적어 시행하지 않는다.

광주송정역, 종합버스터미널, 망월·영락공원 등 혼잡지역에서는 광주시·자치구 공무원, 경찰, 모범운전자회가 함께 교통정리와 주·정차 지도활동을 통해 정체를 최소화한다.

교통특별대책기간에는 전통시장 인근 도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270여개 공공기관·공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인도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는 단속을 유지한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광주시가 추석 연휴 시민과 귀성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국·시립묘역을 찾는 시민과 성묘객 교통편의를 위해 상무지구-종합버스터미널-영락공원을 운행하는 518번 시내버스는 추석 당일(6일) 30회 증차 운행

전통시장 주차 완화·버스 증차... 광주시 추석 교통특별대책

한다. 또 월남동-태령을 운행하는 지원15번은 영락공원을 경유하며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용전86번은 영락공원까지 연장한다.

시내버스·지하철 막차 연장 운행은 이용 수요가 적어 시행하지 않는다.

광주송정역, 종합버스터미널, 망월·영락공원 등 혼잡지역에서는 광주시·자치구 공무원, 경찰, 모범운전자회가 함께 교통정리와 주·정차 지도활동을 통해 정체를 최소화한다.

교통특별대책기간에는 전통시장 인근 도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270여개 공공기관·공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인도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는 단속을 유지한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